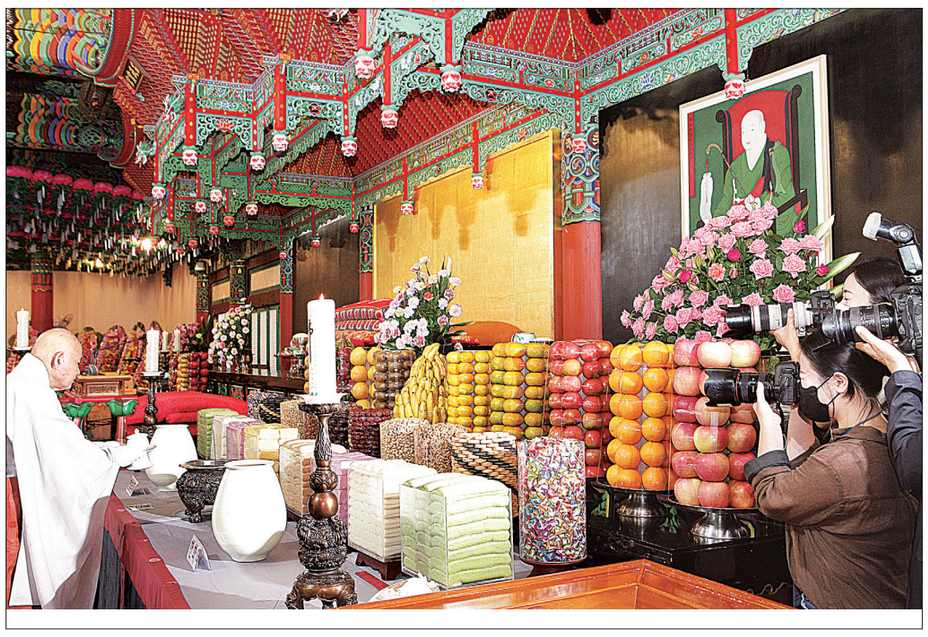
# 통도사, 자장율사 정신 잇는 1377주년 개산대재

**10월 4일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해**
**재적승 59명에 장학금 2840만 원**
**종정 성파대종사 등 사부대중 참석**
**"자장의 계율 정신이 남아 있는 곳"**
**'화엄세계로의 초대' 등 문화축제도**


자장율사 진영.


통도사가 10월 4일 설법전에서 '개산 1377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가 헌다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0월 4일 '개산 1377주년 개산대재 영고재 및 법요식'을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통도사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통해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널리 알리고 불교 이념 및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강조했다.

법요식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문 스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명종 5타 △개산조 자장율사 행장소개 △헌향 및 헌화 △봉행사 △내빈축사 △영축장학금 전달식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축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박사 2명, 석사 6명, 학사 9명, 율원과 학림 승가대학원 14명, 본사 강원 4명 등 통도사 재적승 총 59명에게 장학금 2840만 원을 전달하고, 수행과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서연 양산시 문화관광과 지방행정 서기, 김만성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재삼 양산경찰서 정보관, 박선규 양산소방서 소방위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사했다. 개산대재를 맞아 진행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채윤 학생(김해 내동중학교)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학인 스님의 서예전 및 사진전 '나도 작가다'의 시상도 이어졌다.

주지 현문 스님은 "자장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축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승려들이 계를 수지하도록 하셨다. 통도사는 부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는 계단이자, 자장 율사의 계율정신이 확고히 남아 있는 곳이다"며 "오늘의 뜻을 새겨 불교 이념의 사회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민족 문화의 창달을 책임지는 불지종가 국지대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는 자장율사의 생애를 조명하고 통도사 창건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전통과 현대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장"이라며 "영축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종교와 문화를 접목한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풍성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매년 개산대재를 맞아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해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9월 3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어졌으며 국화꽃 장엄, 문화공연,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2022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미디어아트 사업 '화엄세계로의 초대'는 디지털미디어맵핑, 빛 오브제, 디지털 만화 특별전 등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모았다. 이번 미디어아트 사업은 10월 3일까지 예정이었지만 10월 10일까지 연장 진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9월 30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환성 지안 스님의 삶과 수행'을 고찰했다.

환성 지안 스님은 (喚醒志安, 1664~1729)은 조선시대 선교융합을 강조하고 선시를 통해 대중교화에 앞장선 대선사이며 화엄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환성 지안 스님이 통도사에서 수행했으며, 조선시대 숭유억불 당시 순교한 대선사임을 강조했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억불을 목적으로 환성 지안 스님을 모함해 스님이 순교를 당했다. 반드시 후학들이 알아 스님의 숭고한 수행정신이 전해져야 한다"며 "아울러 환성 지안 스님이 통도사에 주석하신 내용은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연구가 이어져 후배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환자 6명에 휠체어 전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이하 생명나눔부산)가 10월 1일 부산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4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부산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 등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난치병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는 인사말씀 및 휠체어 전달, 걷기명상과 경품 추첨 등으로 이어졌으며, 병원에서 추천한 환자 6명에게 휠체어 6개를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걷기대회 코스에는 다양한 포토존 및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모두 해소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참석자들 모두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취임

부산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사진>이 대한불교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법화종 부산교구는 10월 6일 광명사 앞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이임사 △취임사 △공로패 수여 △임원진 임명장 전달 △치사 △격려사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화종 원로의장 보명 스님, 前 원로의장 진파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前 부산교구 종무원장 상백 스님, 법경 스님, 부산사상구불연합회 회원 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태한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경 스님은 무엇보다 소의경전 〈법화경〉을 더욱 연구하고 불교 부흥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했다. 법경 스님은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하기 위해 법화종이 형성되었고 불교 중흥을 목적으로 종단을 이끌어 왔다"며 "그 종지를 이어받아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화합하고 불교의 부흥과 드높은 법화종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부산교구를 새롭게 이끌 법경 스님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몸소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타행을 실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前 종무원장 상백 스님은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는 법화종도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경 스님은 이·취임식을 기념해 백미 120kg를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동명불원, 장학금 전달 및 산사음악회 개최

**학생 25명에 장학금 2500만 원 전달**
**3년 만에 대면 산사음악회 개최해**




재단법인 동명불원(원장 원순)이 장학금 전달을 통해 인재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명불원은 9월 3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5회 동명불원 가을밤 산사음악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대북공연, 장학금 전달식, 내빈소개, 축사, 가람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산사음악회는 구미정 피아니스트와 초대가수 김용임, 박서진, 삼총사, 권미희, 박현수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장학금전달식에서는 대학부 학생 15명, 고등부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증서는 대학부 김민진(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학생과 고등부 유정우(동명공업고등학교)학생이 대표로 수여했다.

원순 스님은 "지금껏 산속에서 수행하며 지냈다. 처음으로 원장 소임을 맡게 됐는데 행사를 보니 대단히 밝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모든 면에서 힘써 주신 이석근 국장님께 감사한다"며 "불사 중 가장 중요한 인재불사에 아낌없는 후원을 지속해주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불교계와 나라를 위한 큰 인재가 되시라"고 격려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13년 동안 동명불원을 이끌어주셨고 오늘의 뜻깊고 아름다운 행사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시형 전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개인적으로 산사음악회보다 신도님들의 기도비를 십시일반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준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사음악회 행사에는 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박미순 남구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천태문학상
제1회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